



신품종 부실이인데 이번 흑서기 때에도 이렇게 튼실하게 키워냈다. 딸기의 생장점인 관부며 뿌리발육 등이 한 눈에 봐도 좋아 보인다.

차광은 물론 차열(적외선 차단), 산란광 효과, 5년 내구성 기능까지 겸비 후아후아 네트, 흑서기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의 필수품

“차광만 되고 차열이 어려운 검은색 차광망, 차광·차열기능은 좋지만 매번 살포해야 하고 기존 필름수명을 단축시키는 하우스 도포제. 이런저런 장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제품화한 것이 후아후아 네트인 것 같더군요.”

김옥수 / 경남 진주 T. 010-3840-7339

“한 번 보십시오. 딸기 모종이 좋아 보이죠.(중략) 지난주에 전부 다 시집보내고 좋지 않은 것만 저희 농장에 정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 풀 꺾인 9월 중순에 다시 만난 김옥수 씨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준다. 신 품종 금실이라는데 관부(생장점인 크라운)며 뿌리 발육상태, 잎 전개 등 모두 훌륭해 보였다. 올해 같은 흑서기에 이렇게 튼실한 모종을 키워낸 것 자체가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도를 몇 도 내리려고 한 노력조차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위도 너무 더웠으니깐, 이럴 때 최선책이 50~60% 검은색 차광망으로, 이글거리는 태양광을 차단시키는 것밖엔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작년부터 차광은 물론 차열(적외선 차단)도 되는 흰색(회색) 네트(상품명 후아후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검은색 차광망은 햇볕을 흡수하지만 흰색이나 회색의 폴리에틸렌(PE) 차열·차광네트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훨씬 모종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더 낮출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악조건 기후 속에 모종을 튼실하게 길러 냈으니까요.”

후아후아 네트-흰색 직조제조, 산란광 작용으로 광합성 효율 증대는 물론 체감적 온도 하강 기능까지

지난 6월호에 소개되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고온기 때 불투명하다 산란광을 유도하고 저온기엔 투명하다 직사광선을 투과하는 카멜레온 같은 필름, 일교차 큰 환절기 시 꼭 필요한 조광(調光)필름’. 이때 기사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섭외·협조해주었던 (주)ARTS 대리점 강창식(주)신성 대표이사가 또 연락을 해왔다. 작년 1년간 여름 흑서기 때 딸기육묘를 누구 못지않게 잘 키워냈는데... 이 또한 강력한 첨단 농자재(무기)의 뒷받침이 숨어있다고 한 번 더 취재차 방문 요청을 해온 것. 그래서 5월 중순 진주의 보물, 진양호를 품고 있는 대평면 대평리로 향했다.

수 십년 간 딸기 수출로도 유명한 곳이지만 무엇



싸고 취급이 쉬워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은색 차광망 수명은 1년 남짓.



차광은 물론 햇볕 투과를 개선시킨 개폐식 검은색 차광망 설치 전경. 비용이 많이 든다고.



▲ 고품질 딸기 생산이라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입. 체계적으로 적용해보는 과학농업인 김옥수 씨. 언제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최종 결과산물로 보여주는 좋아하는 시원스러운 젊은 농꾼이었다.



산란광 효과로 흐린 날도 온실 내부가 밝았다. 고실 아래 10m 간격으로 냉각과 방열 목적으로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각각에 온도 제어기로 자동 조절되고 있다.

원내는 엠지텍 제품 T. 051) 972-2518



후아후아 네트는 1중 비닐하우스에 그냥 덮어씌우기만 하면 작업 끝. 가볍고 물 흡수가 없어 설치 및 철거가 아주 손쉽고, 폭 6m×50m, 중량 10kg 내외로 초경량 제품.



차광율 60% 회색 후아후아 네트와 차광율 50% 흰색 후아후아 네트 설치 모습. 초경량 폴리에틸렌(PE) 재질에다 직조+열융착 방식 채택으로 뒤틀림 없이 5년간 장기간 사용 가능하다고. 원래는 튼튼함의 비밀, 열융착 제조 도식.



보다 딸기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를 다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피나는 노력과 함께 딸기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우선적으로 적용해보기 때문이리라.

이곳에서 부친 때부터 딸기 한 작목만을 가지고 1동당 660㎡ 내외의 크고 작은 딸기 하우스 16동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옥수 씨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딸기 육묘 시 첫 번째 검은색 차광망보다 후아후아 네트 사용 시 흰색(회색)에다 직조(織造, weaving) 제조라, 산란광 작용으로 훨씬 밝으면서 광합성에 도움이 되며 두 번째 저녁 늦게까지 열을 머금고 있는 검은색 차광망보다 후아후아 네트는 오후 4~5시만 지나도 현저하게 온도 하강을 느낄 수 있어 과열 또는 열대야로 인한 생리장애 현상이 줄어드는 정도만 들을 수 있었고, 검은색 차광망은 한 여름철 정오 때 아지랑이가 엄청 피어나면서 발

산 작용이 심한데 비해 후아후아 네트는 피복해 두어도 거의 아지랑이가 현상 없다면서... 그때 사진 촬영을 다시 하자며 약속한 것이 엇그제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4개월 만에 다시 와보니, 엄청난 혹서기에 모종을 너무나 잘 키워낸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후아후아 네트의 몫이 아닌가 하고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아직까진 후아후아 네트 효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우량 딸기 모종, 그 결과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4동 정도만 시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안팎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고 싶군요.” 취재 말미에 김옥수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도를 꺼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딸기 품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내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농원**

· 김수경 기자

후아후아 네트는 2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PO필름 전문업체인 (주)ARTS(대표 정두석, www.arts21.co.kr)가 수년간 연구 개발해온 일본 다이아텍스에서 제품화한 것을 직수입하여 작년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주)ARTS 대리점 (주)신성(대표 강창식, T. 055) 755-9218)에서 누구보다 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